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경험과 감성의 위치*

— 최인훈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오윤호**

1. 서론: 최인훈 소설 연구의 동향과 감성의 정치성
2. 정치적 불안(공포)의 재현과 사랑의 윤리: 『광장』, 『회색인』
3. 식민지적 폭력의 내면화와 부끄러움의 의미: 『서유기』
4. 결론

국문요약

본고는 최인훈 소설인 『광장』, 『회색인』, 『서유기』에 나타난 근대 국가에 대한 폭력적 경험과 그에 대한 디아스포라가 갖는 감정(불안, 공포, 사랑, 부끄러움 등)에 대한 재현을 살펴보았다. 근대 시민이 경험하는 감성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탈맥락화하며 정치적 수행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근대국가의 권력 시스템 속에서 디아스포라는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무비판적인 정체성을 내면화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와 정치를 경험하면서 수행적이고 유동적인 주체성을 재구축한다. 바로 그러한 능동적 수행성에 기대어 디아스포라의 감성이 내재하고 있는 정치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광장』은 이명준이 근대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의 과정을 재현한 작품으로, 정치적 폭력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음 (KRF-2007-361-AL0015)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조교수.

느끼며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대어 북한과 남한, 제3세계로 디아스포라한다. 『회색인』의 독고준은 한국이 근대화되지 않았다는 인식 속에서, 제국의 피식민지인으로 살아가야한다는 공포를 경험하고, 제국의 식민담론이 강요한 폭력적 전쟁 경험을 개인의 생-체험으로 재인식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사랑의 감정은 근대 국가의 폭력과 위선을 전유하는 탈출구이다. 『서유기』는 환상여행을 통해 근대 시민의 (무)의식과 생활에 내면화된 식민 담론의 의미를 폭로한다. 근대성에 대한 환상과 그것이 모순적으로 발현되는 정치적 공간(W시)에 대한 환멸감을 '부끄러움'으로 전유하면서, 독고준이 경험하는 부끄러움이 다양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됨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인훈 초기 장편소설이 갖고 있는 감성의 스펙트럼을 재인식하며, 20세기를 관통하는 정치적이면서도 '존재' 그 자체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디아스포라의 삶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주제어: 디아스포라, 최인훈, 서유기, 공포, 사랑, 부끄러움, 감성, 탈식민주의)

1. 서론: 최인훈 소설 연구의 동향과 감성의 정치성

2000년대 이후 최인훈 소설에 대한 연구는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진 않지만, 망명문학,¹⁾ 월남문학,²⁾ 디아스포라 문학³⁾ 등으로 그 연구영

1) 권성우, 「근대문학과 대화의 통한 망명과 말년의 양식-최인훈의 『화두』에 대해」, 『한민족문화연구』 45, 한민족문화학회, 2014, 61-88쪽; 정호웅, 「최인훈의 〈화두〉와 일제강점기 한국문학〈낙동강〉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5, 한중인문학회, 2014, 179-202쪽.

2)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통일과 평화』 7집, 2015, 158-212쪽; 서세립, 「월남문학의 유형-경계인의 몇가지 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7-38쪽.

역이 확대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탈식민주의 연구의 연장선 위에서 최인훈 소설의 탈식민성에 대한 연구⁴⁾가 전개되고, 2000년대 이후 한국 문학 연구에 있어서 다문화 및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가 최인훈을 비롯해 소설 속 인물들의 정치적 삶과 디아스포라의 경험에 대한 연구로 심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 디아스포라인 최인훈 자신을 비롯하여 그의 소설 속에 인물형상화된 디아스포라 인물의 정치적 수행성을 탈국가적이며 탈근대적인 의미로 재인식하도록 만들며, 그동안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 갇혀 있던 최인훈 문학을 트랜스내셔널리즘 문학으로 재의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최인훈 초기 장편소설 속에 재현된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경험과 감성의 위치'에 주목한다.

『광장』⁵⁾의 이명준은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만족할만한 국가 시스템과 낭만적 사랑을 찾아 남한에서 북한으로 다시 남한으로 왔다가 제3세계를 선택하고 결국 작품의 마지막에 죽음을 선택한다. 『회색인』⁶⁾에서 월남한 독고준은 혁명을 포기한 체 사랑이라는 윤리에 빠져 서유정의 방으로 들어간다. 『서유기』⁷⁾의 독고준은 폭력적인 원초적 장소(W시)로 회귀하면서 무의식적인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부끄

3) 박소희, 『최인훈 소설의 난민의식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1; 오윤호, 『『화두』와 20세기 식민지 지식인의 탈이데올로기적 저항』,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69-94쪽.

4) 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기억하기'와 탈식민성-〈서유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5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4, 386-417쪽; 김미영, 『최인훈의 『서유기』 고찰-패러디와 탈식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32집, 국제어문학회, 2004, 175-207쪽; 김정화, 『최인훈 소설의 탈식민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오윤호, 『한국근대소설의 식민지 경험과 서사전략 연구-염상섭과 최인훈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2.

5) 최인훈, 『광장』, 문학과 지성사, 2011.

6) 최인훈, 『회색인』, 문학과 지성사, 2001.

7) 최인훈, 『서유기』, 문학과 지성사, 1996.

러움을 느낀다. 근대국가의 시민이면서도 제국의 식민주의 담론이 내면화된 자신의 사회와 맞서는 이명준과 독고준은 (제국을 포함한) 근대국가의 정치적 폭력성을 경험하며, 그것의 실체와 탈이데올로기의 가능성을 디아스포라하며 탐색한다. 이때 최인훈 초기 장편소설은 남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정치성(식민성)을 디아스포라가 경험하는 감성의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 펼쳐 보여주게 된다. 인물들이 드러내는 공포, 연민, 사랑, 부끄러움과 같은 감성은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낭만적이거나 관념적으로만 들여다보려는 한계가 아니라, 정치적 현실을 탈맥락화하기 위한 디아스포라 소설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기능한다.

최근 문학에서의 감성에 대한 연구는 문학의 정치성 및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감성’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근대문학 연구의 흐름인 근대성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문화연구에서 촉발된 키워드이다. 감성 연구는 감성 매커니즘의 변화를 통해 문학이 정치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문화정치학의 요구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⁸⁾

박현호는 “왜 감성-이데올로기의 연구인가?”⁹⁾에서 문학 속의 감성 체계가 이데올로기나 규범 등 문화적 구성물들을 형성하고 전복하는데 작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감성 연구는 이데올로기의 조건과 감성의 구조화 사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문학 텍스트의 미적 형식과 의미에도 깊이 관여함을 강조하고 있다.

진은영은 자크 랑시에르의 『감성의 분할』을 재인식하며,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의 문제는 ‘감각적인 것을 분배하는 문제’이며 그런 한에서 예술은 필연적으로 ‘정치’와 관계한다”¹⁰⁾라고 요약한다. “랑시에르에

8) 김경미, 『감성의 정치학, 이광수 그리고 한국근대문학』 박현호 편, 『센티멘탈 이광수 감성과 이데올로기』(소명출판, 2013), 『어문론총』 제5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657-658쪽.

9) 박현호 편, 『센티멘탈 이광수 감성과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13, 8-9쪽.

계 예술의 정치성이란 기존의 지배적 담론 체계에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내용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배적 담론 체계를 파열시켜 새로운 종류의 감성적 분배를 가져올 삶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¹¹⁾

근현대문학의 형성과 감성의 구조가 갖고 있는 관련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다양한 연구¹²⁾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문제적 시각은 최인훈 문학에도 적용되어 왔다. 백현미는 무대 효과 및 재현에 의해서 발생하는 1차 감성(기본적 감성 또는 감응), 플롯과 인물형상화를 통해 구체화되는 2차 감성(사회적 감성), ‘극 중 극’ 형식의 역할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의사감성으로 나누어, 최인훈이 쓴 희곡 『등등 낙랑등』의 감성 활성화 양상을 분석하였다.¹³⁾ 특히 2차 감성의 활성화를 분석하며, 호동과 왕비의 애정 갈등이 전쟁 및 권력 갈등과 얽히는 플롯을 통해, 죄의식과 자책(호동), 수치심과 분노(왕비)가 뒤엉킨 불안한 자부심에서 승고한 죄절에 이르는 감성의 흐름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연남경은 『크리스마스 캐럴5』를 분석하며 치안질서를 위반하며 서울역의 공중변소와 창경원의 담을 뜨겁게 감각하는 ‘나’의 감성에 주목한다.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문학의 정치성에 기대어, 최인훈 소설이 치안 질서에 대한 감성적 재배치 이후 새로운 공동체(부정의 공동체)를 상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¹⁴⁾

10)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 그린비, 2014, 18쪽.

11)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 그린비, 2014, 29쪽.

12) 김행숙·서동욱·심보선·신형철 좌담, 『감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에서-오늘 날 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동네』 2009 봄호, 문학동네, 2009; 이수형, 『근대 문학연구에서 감정의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6,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43-64쪽; 임정연, 『청춘의 표상과 감성의 정치』,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323-345쪽.

13) 백현미, 『최인훈 희곡 〈등등 낙랑등〉의 감성 연구』,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 189-215쪽.

14) 연남경, 『최인훈 문학의 미학적 정치성』, 『현대문학이론연구』 6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문학이 재현하는 감성 체계는 이데올로기나 규범 등 문화적 구성물들을 형성하고 전복하는데 작용한다.¹⁵⁾ 기존 연구를 놓고 봤을 때, 최인훈 문학 속에 재현되어 있는 감성을 재인식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최인훈 문학 속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정치적 저항으로서의 감성이 갖는 의미를 재의미화할 수 있다.

규율체계로서의 근대 국가는 성립했지만, 근대성을 실현해야 할 시민이 전쟁으로 인해 ‘생존에의 위기의식’, ‘존재론적 불안의식’, ‘윤리적 기만의식’ 등을 체험하게 되면서 제도화된 현실로부터 삭제되었던 혹은 부재했던 시기가 1950년대이다. 이러한 1950년대 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최인훈의 『광장』, 『회색인』, 『서유기』는 불안, 공포, 피해의식, 허무감, 부끄러움 등을 소설적 소재로 사용하며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감성적 대응을 재현한다. 그러한 대응이 전쟁으로 구체화되었던 1950년대 이데올로기 갈등과 억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는 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고는 최인훈 소설인 『광장』, 『회색인』, 『서유기』에 나타난 근대 국가의 폭력과 그것을 감각하고 지각하는 지식인 디아스포라가 갖는 감성의 경험과 구조를 밝힐 것이다. 특히 불안, 사랑, 부끄러움이라는 감성을 중심으로, 근대국가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치적 현실과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전유하기를 통해 근대 시민이 탈정치화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며, 이 과정이 전략적인 디아스포라의 글쓰기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여기에 디아스포라 문학과 젠더 주체의 수행성¹⁶⁾에 대한 관점은 분석

219-248쪽.

15) 김경미, 『감성의 정치학, 이광수 그리고 한국근대문학』 박헌호 편, 『센티멘탈 이광수 감성과 이데올로기』(소명출판, 2013), 『어문론총』 제5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658쪽.

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최인훈 초기 장편소설을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연구하는 작업은 근대 국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전유와 인물들의 수행적 정체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유효하다. 다국가적이고 다문화적인 교차 속에서 국가와 문화를 경험한 디아스포라는 지배적 민족국가 체계를 타의든 자의든 탈영토화하는 탈경계적 주체들이다. 근대국가의 권력 시스템 속에서 디아스포라는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무비판적인 정체성을 내면화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와 정치를 경험하면서 수행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재구축한다. 본고는 바로 그러한 능동적 수행성에 기대어 디아스포라의 감성이 내재하고 있는 정치성을 밝히려 고 한다.

2. 정치적 불안(공포)의 재현과 사랑의 윤리: 『광장』, 『회색인』

『광장』은 이명준이 근대 국가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과정을 재현한 작품이다. 그에게 있어 근대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건 자기만의 ‘밀실’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국가나 사회 속에서 다른 타인과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광장’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준의 욕망은 실제 현실 속에서는 낭만적이거나 관념적인 상상에 불과하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근대 국가로 표상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파생된 폭력적 상황 속에서 억압당하게 된다. 그는 반복적으로 복종하는 시민이 아닌 전복이나 혁명을 노리는 존재로 탄압을 받는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다시 제3세계 국가로 이어지는 이명준의 디아스포라는

16)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08, 7쪽 및 25-26쪽 참조.

근대 시민의 개체적 욕망과 근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폭력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명준은 국가 폭력에 대해 공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불안을 느끼는데, 이러한 감정이야말로 최인훈의 소설(『광장』, 『구운몽』, 『회색인』, 『서유기』 등)이 보여주는 근대 시민의 의식과 정치적 억압의 내적 구조화를 잘 보여준다.

『광장』에서 이명준이 경찰에 잡혀가 밤새워 취조를 당하고 백주대낮에 버려지듯 나오는 장면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근대 시민의 정치적 위치와 감정적 대응을 잘 묘사하고 있다.

명준은 겁에 질려 오투기처럼 벌떡 일어선다. 곧바로 얼굴에 주먹이 날아온다. / 명준은 아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지다가, 의자에 걸려 모로 뒹군다. 끈적끈적한 코밑에 손을 댄다. 마구 코피가 흐른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한 손을 코에 댄 꼴이 흡사 개 같다 싶어, 엉뚱하게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쿡 웃는다. (『광장』, 71쪽)

더 권하지도 않고 형사는, 저만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들인 다음, 후내뿜는다. 일을 한바탕 치른 다음 흐뭇이 한숨 돌린다는 몸짓이다. 속에서 탈대로 타고 난 무서움의 잿더미에 미움의 찬비가 소리없이 내리면서, 남은 재를 고스란히 적시며, 명준의 온몸에 스며간다. 부드득 이 가는 미움보다 더 차분하지만 사무치는 미움이다. (『광장』, 73쪽)

신문에 자기 노래를 싣고 부르주아 청년들과 서울의 낭만(댄스, 드라이브, 파티, 영화 등)을 즐기고, 창가에서 풍경의 경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응시하며 무료하고 고독한 생활을 이어가던 이명준은 경찰의 무서운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아버지는 45년 월북한 이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북한에 남아 대남방송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경찰은 이명준이 아버지와 내통하는 간첩이라는 설정 아래 가치없이 폭행한다. 그 앞에서 이명준은 무차별적인 폭력에 뒤틀린 자신의 몸을 보며 실소를 머금기도 하고, 경찰 폭력에 대한 무서움과 미움을 느끼

게 된다. 한 개인의 삶은 수사관의 폭력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나는 법률의 밖에 있는 건가.”라고 반문하고 “돈과, 마음과, 몸을 지켜준다는 법률의 밖에 있는 어떤 길.”을 상상하며, 시민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민의 정체성에 대해 사유한다. 그러면서 폭행당하는 자신을 ‘식민지 시대의 운동가와 동일시하게 된다. 식민지 시대에도 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의 시민이었지만, 시민으로서의 법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 독립 이후에도 한반도에 근대 국가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의 현실 속에는 근대 식민지의 이데올로기가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특히 경찰은 ‘일제 때 특고 형사 시절 좌익을 다루던 이야기’를 이명준 앞에서 늘어 놓으면서, ‘빨갱이를 잡는 일’이 얼마나 손쉬운지, 식민지 시대나 일제 때 경찰이 다시 남한의 경찰이 되어 있는 현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의 이데올로기 갈등은 경찰로 하여금 국가 권력을 파행적으로 남용하게 만들며 정당한 시민의 권리마저도 무참히 짓밟게 만든다. 반복되는 근대 국가의 왜곡된 권력은 이명준의 신체 위에 식민지 경험(위협과 폭력)을 다시금 새기며,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그 공포와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이명준은 또다른 폭력성을 드러낸다. 경찰서 앞길 위에서 “발을 움직여 개미를 비벼 죽인다. 풀과 흙에 묻혀서 자국도 없어질 때까지 발을 놀”리며, “분하고 서러운” 감정을 강한 폭력 혹은 분노로 드러낸다.

국가 폭력에 대한 공포 의식과 이에 대응되는 폭력적 행동은 근대 국가의 권력 행사와 그것을 폭력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대 시민의 왜곡된 주체 구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명준과 같은 지식인은 자신의 삶을 근대 시민으로 규정하고 싶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정치 권력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이명준은 자신이 감

당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감각에 대해서 극한까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에 주목하게 된다.

“‘사랑’이란 말 속에, 사람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의 모든 걸 집어넣는다. 그런 잘못과 헛된 바람과 헛믿음으로 가득 찬 말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부드러운 살결로 벽처럼 둘러싼 이 물건” 운애를 차지해보자는 “복받침”을 이명준은 경험한다. “사랑의 고백도 없이” 그녀와 키스하고 애무를 하며,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의 발길질에 멍이 들고도, 관념 철학자의 달걀답게, 이런 어수선한, 곤달걀 속 같은 꿈 넋두리 속을 오락가락”하며, 이명준은 국가 폭력으로부터 왜곡된 자기 정체성의 방향을 운애와의 사랑에서 찾고자 한다. 하지만 이명준의 의식 속에서 강간과 섹스, 사랑의 의미가 명료하게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운애와의 신체적 접촉 역시 이명준이 갖고 싶은 자유의 탈출구, 존재 증명의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명준이 “운애, 운애 그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사람이 다른 한 마리의 사람을 사랑하는 데 무슨 체면이 필요해?”라고 말하고, “알몸으로 날 믿어줘. 운애가 날 믿으면 나는 변신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 하겠어. 날 구해줘.”라고 하소연해도, 운애는 “제가 뭘데요?”라고 말하며 이명준에게 구원이나 믿음을 주지 않는다. 이명준의 사랑은 진정한 애정과 신뢰, 믿음을 결여하고 있으며, 매우 충동적이고, 유혹적인 말들로 표현될 뿐이다.

이때 선창가 선술집 주인의 말에 이끌려, 이명준은 이북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된다. 이북에서도 이명준은 국가권력에 환멸을 경험하고 은혜와의 사랑에 빠지지만 당보다도 은혜를 더 사랑한다는 부르주아적인 사상(은혜의 표현)을 버릴 수 없었다. “은혜, 아무말도 묻지 말고 내 말 대루 해줘. 사랑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농담 삼아 깔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도 좋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하는 이명

준에게 은혜는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모스크바로 떠나게 된다. 은혜의 배반은 윤애의 변덕만큼이나 이명준에게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이데올로기와 사랑의 대립, 국가의 시민에 대한 폭력과 한 개체의 다른 개체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대립 속에서 탈출구가 반복적으로 막혀버리는 것이다. 한 여자만을 사랑한 수 있다면, 국가마저도 버릴 수 있다는 이명준의 절박함은 번번히 실패하고 만다.

제3세계로 떠나는 배 속에서 이명준은 꿈 속의 윤애에게 “윤애, 난 사랑했어. 방법이야 아무리 서툴렀을망정. 난 사랑했기 때문에 윤애 버리고 도망한 거야. 나는 너를 능욕하려 했을망정, 어느 병사처럼 길가의 여자에게 꽃꽂이 익힘을 한 적은 없어.”라고 깨닫게 된다. 이것은 은혜와의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더 이상 자신의 사랑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진정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준이 타고르호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는 것은 “국가 폭력 → 사랑 → 디아스포라”로 도망치듯 이어지는 삶의 반복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다.

이렇게 『광장』이 국가 폭력의 대안으로 ‘사랑’을 전제한다면, 『회색인』은 ‘사랑’을 국가 권력을 재맥락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한다. 『회색인』의 독고준은 과거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전쟁이라는 정치적 폭력을 자신의 생(生)-경험으로 재인식하며, 이데올로기적인 가치를 해체한다.

그 여름에 “수평선 저편에서부터 시커먼 강철의 새들이 항구의 하늘 위로 덮쳐들면서 땅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마치 귀찮은 일인 것 마냥 폭격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항상 정치의 밖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슬픈 버릇”이었다. 하지만 그 새들은 존재하는지

도 모르고 시민들이 그 존재를 승인해준 적도 없는 국가가 몰락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폭력’ 그 자체이다. 『광장』의 이명준처럼 타인에게서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진 않지만, 독고준은 거대한 국가 폭력(전쟁)이 만들어내는 공포와 세밀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독고준이 기억하는 전쟁은 ‘W시의 그 여름 하늘을 은빛의 날개를 번쩍이면서 유유히 날아가는 강철새들의 그 깃소리로 시작된다. 국가나 중앙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비행기의 엔진소리는 경이롭고 낭만적인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 독고준은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를 찾아갔다가 미군 폭격 아래에 놓이게 된다. 한 여성의 손에 이끌려 방공호로 가 몸을 간신히 숨기게 된다. 이때 독고준은 “가슴과 어깨로 밀려드는 몽클한 감촉”, “더운 뺨, 더운 살.” “살 냄새를 감각하며 사유와 관념 속에만 존재하던 성적 대상을 촉각과 냄새, 생명의 움직임으로 경험한다. 전쟁의 폭력적 힘을 경험하는 순간이면서도, 여성의 신체를 그 자체의 감각으로 경험하고 자기 존재의 생명성을 느끼는 순간이다.¹⁷⁾

폭격이 지난 후, 독고준은 가끔 폭격이 있을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감감한 이불 속에 하얀 얼굴”을 보고, “따뜻한 팔. 뜨거운 뺨. 살 냄새.”를 느끼게 된다. “하늘과 땅을 울리는 폭음이 아니라 귀를 막아도 들리는 더운 피의 흐름 소리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그는 “부드러운 살의 공포”라고 부르고, 자신의 쾌락을 “이불 속의 어둠” 속 “죄의식”이라고 명명한다. 『나나』를 읽으며 상상했던 나나의 알몸이 이야기의 세계에서 튀어나와 현실이 된 것이다. 책읽는 것만이 유일한 세계

17) 『회색인』, 49-50쪽.

를 이해하는 방법이었던 독고준에게 소문처럼 찾아든 전쟁은 첫경험과 같은 강렬한 생의 경험을 제공했던 것이다.

“평범의 탈을 쓰고 고독한 망명자”의 삶을 사는 독고준에게 “그 여자”는 반복적으로 유령처럼 인어(人魚)처럼 등장한다. 매형(현호성)의 당증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 다음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구할 생각을 하면서도 “하얀 목덜미. 풍부한 입술.”을 하고 인어처럼 기억의 한복판으로 솟아오르는 그녀를 지울 수 없다. 그녀는 폭격이 일어나는 도시에서 독고준을 살려준 구원자이자, “소년의 속에서 점화된 욕망의 빛”이라 할 수 있는 성적 대상이기도 하다. 남한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과 더불어 그녀는 보다 깊은 성적 감수성을 내포한 존재로 되살아나게 된다.

그녀는 마치 “원형”처럼 독고준이 만나는 모든 여자들의 기준점, “성지의 여신상”이다. 김순임을 만났을 때도 그녀를 기준에 두고 김순임을 생각하고, 김순임과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싶다고 욕망한다. 이후에 그것이 단순히 “무책임한 성욕”이었을 고백하며, 독고준은 스스로에게 깊은 “혐오”를 느낀다. 김순임을 순결하다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갈 때 독고준은 김순임의 뒤쪽에 자신의 분신인 ‘드라큘라’가 서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에 반해 김순임은 수수께끼같은 독고준을 구원하라는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독고준에게 ‘사랑’은 매우 중요한 화두다. 제국에 지배받는 원주민이 되기 않으려면, 사람들에게 수난당하는 기린이 되지 않으려면, 보호 구역의 주민이 되지 않으려면 혁명을 해야 하지만, 독고준은 혁명과는 다른 자기만의 방법을 생각하며, “정치의 악을 ‘애고의 사랑’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말하며,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은 ‘역사의 사랑’이기 때문에”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건지지 못할 바엔 같이 망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며, 이해하거나 배려

하려는 태도가 아닌 대상이 처한 위치에서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회색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으로 가기 위해 2층 계단을 내려가는 행위야말로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다. 그녀와의 관계는 육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이며 매우 현실적이기도 하다. 이유정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지만, 자기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윤리적 태도이기도 하다. 혁명이 아닌 사랑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유정에 대한 최선의 배려는 그녀가 '기억 속의 그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한편으로는 기억 속 그녀를 단지 상상과 기억에 의해서만 이미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 살아 있는 부드럽고 뜨거운 몸을 가진 존재로 구현해내는 것이다. 이것은 간혀 있던 생 체험을 예고의 위치로 끌어 올리는 행위이며, 독고준이 국가의 폭력을 극복하는 최선의 윤리적 태도인 것이다.

3. 식민지적 폭력의 내면화와 부끄러움의 의미: 『서유기』

앞서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와 '공포'를 경험하는 인물들이 폭력적 상황을 '사랑'으로 탈맥락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덧붙여 '분노', '공포'와 함께 최인훈 초기 장편소설 속에서 '부끄러움'은 정치적 현실에 대한 환멸감과 근대 시민의 탈국가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감정이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제국의 얼굴을 감춘 근대 국가라는 정치적 담론을 폭로한다. 최인훈 초기 장편소설 속 부끄러움은 하나의 감정이면서도 개인적 감성에서부터 정치적 이데올로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광장』의 이명준은 제3국으로 떠나는 배 위에서 외국 선장과 선원들

이 보여주는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석방자들이 제 나라 어느 한 쪽도 마다하고, 낯선 땅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제 나라에서 쫓긴 수난자 같은 모습”(『광장』, 25쪽)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싶게 못마땅하다.”(『광장』, 25쪽)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제3국으로 떠났지만, 여전히 이명준의 정체성은 뒤에 남겨진 ‘국가’ 혹은 ‘민족의 장 안에 갇혀 있다. 이때 ‘부끄러움’의 감정이란 “제 나라에서 쫓겨난 수난자”라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모멸적인 정서다.

『회색인』에서 황선생은 일본의 근대와 서구 유럽의 근대가 부딪치고 조선이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조 말엽에 나라를 망친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회색인』, 161쪽)이라고 말하며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학”(『회색인』, 161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의 ‘부끄러움’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자학과 같은 감정이다. 최인훈의 초기 장편소설에서 ‘부끄러움’은 국가와 시민, 민족과 개인의 정치적 관련성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감성이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이명준은 제3국 혹은 죽음을 선택하고, 독고준은 혁명을 외면하며 사랑을 선택하면서 국가(민족)으로부터 쫓기거나 달아나게 된다.

제국과 근대국가의 폭력적인 소리에 쫓기며 W시를 방황하는 『서유기』 역시 ‘부끄러움’의 다양한 양상이 재현되어 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서유기』의 ‘부끄러움’은 제국과 근대국가가 강요한 이데올로기와 허위의 윤리를 폭로하고 있다.

『서유기』는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을 나와 2층계단을 올라가면서 시작된다. 독고준의 무의식 세계에 큰 트라우마로 자리잡은 W시를 여행하며, 초기3부작의 원초적 장면을 재구한다. 이 여행은 월남 이전의 독고준이 경험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고, 식민지 이전 시기의 역사적 인

물이 죄인으로 고통받는 ‘지옥’과도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공간은 독고준이 해매는 배경 자체가 일제 하의 식민지 상황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헌병이 조선의 역사 속 인물들을 수감해 놓고 감시하고 있는 공간이다. 논개, 조봉암, 이광수와 같은 실존인물들과 그리고 식민지 지배자인 가상의 헌병이 보여주는 식민지적 상황과 그 안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탈)식민주의적 인식이 주요한 서술의 대상이다.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 순간에 그들의 행동이 갖고 있었던 맥락적 의미를 재탐색함으로써 개인의 행동과 역사적 상황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해석이 얼마나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단지 ‘그 여름’으로의 방향성만을 갖고 있는 독고준이야말로 반체제적이고 작품 속에서 의심을 받는 것처럼 그 체제를 위협하는 간첩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독고준은 지하철도 정거장의 지하실에서 일제 헌병을 만나고 그가 밤이며 낮이며 주리를 틀었던 논개를 만나게 된다. 헌병은 독고준에게 논개와의 결혼을 종용하고 논개 역시 “당신은 너무해요. 제가 겪은 괴로움을 생각하신다면 이러실 수 없어요. 자 빨리 저하구 결혼한다구 이 사람 앞에서 그 종이에 서명하세요.”라고 말하며 간절히 독고준의 선택을 기다린다. 하지만 독고준은 ‘그 여름’을 향해 가고 있고, ‘그 현장’을 보고싶기 때문에 논개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저만이 아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어서 말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걸 입 밖에 내면 전 죽을 겁니다. 부끄럼 때문에. 제 영혼의 치부지요. 당신은 잔인하지 않을 테지요. 벌레 같은 한 마리 사람에게 그의 부끄럼을 풀어놓으라고는 안 하실 테죠?
(『서유기』, 46쪽)

독고준은 민족을 구한 민족 영웅인 논개에 비하면 한낱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민족보다는 ‘그 여름’의 현장에 가는 개인적인 일이 소중하며 그것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개인의 내밀한 “치부”이다. 개인적인 치부가 남에게 까발려지는 것이 독고준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다. 이후 헌병, 논개, 독고준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고 민족과 개인의 대립 속에서 독고준의 반민족적 정체성은 크게 비난 받는다. 일본 제국에 포획된 민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논개가 부르는 ‘장한몽’을 들으며 독고준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때의 ‘부끄러움’은 앞서 개인적인 치부와 결부되어 그 단절의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부끄러움’과는 의미가 다르다. 민족적 의미에서 보자면, 같은 민족으로서 논개를 구하는 것,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일본 제국의 지옥에서 구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당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논개는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독고준의 부끄러움은 남들처럼 강요하는 민족적 감정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며, 한 여자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몰인정함에 대한 죄의식의 반영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마치 이수일이 된 것처럼 심순애와 같은 논개의 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독고준은 민족적 감정과 정체성에 앞선 “나의 삶”¹⁸⁾에 주목한다. 독고준의 ‘부끄러움’은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감성적 대응을 보여준다.

한편, 독고준은 이 곳에서 이광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광수는 지옥에서 깨닫게 된 자신의 역사의식과 죄의식을 ‘부끄럽다’고 표현하며 비판

18) 나의 삶, 그것은 나만의 것이다. 그것을 살고 싶다는 소망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버린다. 나의 책임에서 너무도 멀리 벗어난 짐, 그것을 나는 짊어질 힘이 없다. 힘이 없는 것을 말아서 쓰러지는 데 어떤 뜻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나의 여름, 그것이 내 뜻이다. 그것은 뜻도 아니다. 목숨이다.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나의 목숨이다. (『서유기』, 64쪽)

적으로 이야기한다.

최인훈은 『회색인』에서 이광수의 『흙』을 소개하며, 시대 정신인 계몽을 목적으로 조선인의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허승과 같은 인물을 창조한 이광수야말로 매우 훌륭한 식민지 시대의 소설가라고 극찬한다. 하지만 『서유기』에서 일제시대 때 친일활동을 한 이광수는 서구 강대국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그 서구를 대적할 존재는 일본 밖에 없다고 말한다. ‘조선과 일본은 본국과 식민지 사이가 아니고 합방하였으니 똑같은 하나의 나라’라는 제국주의적 허울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다. 서구 근대와 대비하여 산업화·근대화되지 못한 조선은 무엇보다도 부국강병, 계몽을 통해 빨리 서구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이광수는 욕망했다. 그 과정에서 이광수 자신에게 ‘세계는 장차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끼리가 먼저 합쳐진다는’ 보편세계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시대착오적인 감각과 잘못된 세계인식으로부터 나왔고, 이광수는 바로 이러한 잘못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신민임을 주장했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병은 이광수를 가리키며 “여기 있는 사람이, 정치와 문학을 가장 괴롭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입니다.”라고 추켜세우면서, “현실 개조의 도구”인 문학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역설한다. 헌병이 보기에 이광수가 스스로와 민중을 배반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광수는 “고통스러운 근대인의 드라마”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다. 이러한 제국의 목소리는 이광수의 부끄러움을 역설적으로 읽게 만든다. 이광수의 부끄러움은 제국의 욕망과 왜곡된 근대에 대한 선망이 내포한 폭력성을 투명하게 비추고, 제국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도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독고준은 논개든 이광수든 민족의 영웅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따라서 타자들(관습과 이데올로기, 근대 국가 체계)이 만들어놓은 윤리적 기준에 빗대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 공과를 사유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근대시민의 왜곡된 윤리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국의 목소리,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독고준은 일본과 갈등을 빚었던 조선시대부터 식민지 시대를 거쳐 한국 전쟁 이후까지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근대시민의 주체성을 구성하려던 것을 멈추고, '부끄러움'이라는 자기 고백 및 성찰을 전면화한다. 자기 자신을 청자로 하는 독고준의 부끄러운 감정은 근대국가로부터 경험하는 정치적 소외로 인한 시민의 자폐적인 우울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전략적으로 근대 국가의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독고준이 W시를 기억하고 여행하는 이유는 『회색인』에서는 그를 구원한(혹은 그가 구원한) '그녀'를 찾기 위한 것이었고, 『서유기』에서는 지도원 동무와의 법정 다툼을 통해 개인의 삶과 역사적 조건과의 관련성을 재인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재판정에서 낭만적인 감수성이 가득한 시들로 채워진 일기장을 읽고 무죄를 선고받은 독고준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어디선가 웅웅거리는 꿀벌소리. 은은히 들려오는 폭음. 엔진소리. 그것은 모두 부끄러움이었다." 이때의 부끄러움은 개체적 존재인 독고준이 자신의 감각을 통해 경험했던 경험과 감각이 배신원과 재판장, 지도원 동무 앞에 펼쳐져 보이는 것으로 인해 발생했다. 치부라는 표현처럼 한 개인의 내적 삶이란 국가나 역사적 인물, 학교 선생이라고 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요구야말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다.

‘부끄러움’은 전체 소설에서 팽팽하게 전개되었던 근대시민의 불안의 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체적 존재로서의 독고준의 심리상태를 표상한다. 부끄러움은 타자의 시선에 기대어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윤리적 태도의 일종으로 ‘자기 행동에 대한 죄의식’을 반영한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고준의 석방을 비난하는 담론화된 목소리들을 가로지르며 독고준은 원초적 경험 이전의 가족과의 삶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는 연이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자꾸 부끄러웠다. 부끄럽다는 것이 화가 나는데도 아랑곳없이, 그는 자기 자신이 이마에 모닥불을 이고 걸어가는 느낌이었다.”(『서유기』, 296쪽)

이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의식 때문에 형이나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사유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철이 들어 처음으로 그를 제일 사랑해주었던 것은 어머니라는 생각이 제시처럼 확실해지며, 그러한 자각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낀다. 『광장』과 『회색인』을 보더라도, 이명준과 독고준은 월남한 고아로 묘사되거나, 세계 속의 단독자로서의 위상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서유기』에서 근대 국가의 폭력적 상황 이전에 경험한 가족에 대한 감각과 의미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국가나 민족, 이데올로기나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한편 부끄러움이 ‘나’로부터 시작된 ‘악’이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매우 위험한 독”이라는 사실도 자각한다. 그러한 논리와 부끄러움을 거부하기 위해서, 독고준은 타자들의 윤리에 따르는 ‘선인’이 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요구하는 ‘독백’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환상 여행을 끝마치고 자신의 방 침대로 들어왔지만 “온몸이 모닥불이 된 것처럼 부끄러웠다.” 이때의 부끄러움은 남자로서 여자방 앞에서 머뭇거렸다는 자괴감이기도 하지만, 결국

환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 자의식에 대한 고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통해 독고준은 관념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재를 들여다보게 된다.

4. 결론

이상 최인훈 초기 장편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경험과 감성의 위치를 분석하였다. 그 동안 정치, 국가시스템, 권력, 이데올로기 등의 핵심 주제들로 이루어졌던 최인훈 소설에 대한 연구를 개체적 경험의 감성과 그 정치적 수행성으로 재개념화하려고 하였다.

최인훈 소설에서 디아스포라의 감성(감정)은 근대국가의 정치적 현실로부터 파생된(억압된) 부산물이 아니라, 그것과 직접 대면하고 맞닿아 있으면서, 그것을 해체하는 매우 중요한 문학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구체화된 근대국가의 폭력적 이념 혹은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획일적으로 호출됨 감성이 아니라, 감성적인 전략을 통해 정치적 현실을 해체하고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추방자이면서 망명자의 운명을 걷는 이명준은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며 '사랑'을 추구하는 탈국가적·탈경제적 존재로 남기를 원하고, 독고준은 '부끄러움'을 통해 근대 국가에 대한 원초적 경험과 감정이 내면화하고 있는 정치적 정체성을 재배치하고, 역사적 실체로 위장된, 이데올로기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해체해 나간다.

『광장』의 '사랑'은 관능적이고 에로틱하지만,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관념성과 일방성(폭력성)으로 인해, 국가 이데올로기를 재맥락화하거나,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효과적으로 폭로하지는 못한다. 경찰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몸과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입는 것처럼, 그녀와의 성적 결합과 감정 소통은 이명준의 근본적인 고독과 소외감을 증폭시킬 뿐이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다시 제3세계로 이어지는 공간적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보다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과 이데올로기를 찾는 노력은,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여인의 마음, 그녀와의 합일되는 사랑을 꿈꾸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에 비한다면, 『회색인』에서 사랑은 보다 원초적이면서도, 정치적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전쟁이라는 국가 폭력은 한 개체의 말초적 감각이거나 생명의 근원적 욕망으로 재해석되고, 『광장』에서 절대적 가치로 제시되었던 사랑은 김순임이 아닌 이유정의 관계 속에서 속물적인 구원으로 인식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유정의 방으로 들어가는 공간적 이동은 월남하기를 종용하는 대북 방송이 내포한 폭력성에 귀기울이며, ‘작은 혁명’ 혹은 ‘드라마’를 꿈꾸며 사랑을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근대시민의 속물성을 폭로하게 된다.

『서유기』에서의 ‘부끄러움’이란 제국이 만들어낸 근대성에 대한 환상에 취했던 죄의식에 기인한 윤리적 한계를 폭로하기도 하고, 모순적으로 발현되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환멸감을 전유하기도 한다. ‘부끄러움’은 매우 전략적인 서술 방법으로, 감성을 통해 제국의 언설을 뒤집는 것이며, 디아스포라로서 역사에서 빗겨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최인훈 초기 장편소설이 재현하는 불안, 공포, 사랑, 부끄러움 등을 분석하며 식민지를 경험하고 남북 이데올로기를 경험한 근대 시민(디아스포라)의 감성이 일종의 정치적 스펙트럼 위에 펼쳐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차후에 최인훈 문학이 갖고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삶 그 자체로 기능했던 ‘감성의 지도’를 그리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최인훈, 『광장』, 문학과 지성사, 2011.
_____, 『회색인』, 문학과 지성사, 2001.
_____, 『서유기』, 문학과 지성사, 1996.

2. 논문과 단행본

- 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기억하기’와 탈식민성-〈서유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5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4, 386-417쪽.
권성우, 『근대문학과 대화의 통한 망명과 말년의 양식-최인훈의 『화두』에 대해』, 『한민족문화연구』 45, 한민족문화학회, 2014, 61-88쪽.
김경미, 『감성의 정치학, 이광수 그리고 한국근대문학: 박헌호 편, 『센티멘탈 이광수-감성과 이데올로기』(소명출판, 2013)』, 『어문론총』 제5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657-664쪽.
김미영, 『최인훈의 『서유기』 고찰-패러디와 탈식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32집, 국제어문학회, 2004, 175-207쪽.
김정화, 『최인훈 소설의 탈식민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행숙·서동욱·심보선·신형철 좌담, 『감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에서-오늘 날 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동네』 2009 봄호, 문학동네, 2009.
김 현, 『헤겔주의자의 고백』, 이태동 편, 『최인훈』, 서강대 출판부, 1999.
박명진, 『한국 전후희곡의 담론과 주체구성』, 월인, 1999.
박소희, 『최인훈 소설의 난민의식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1.
박헌호 편, 『센티멘탈 이광수-감성과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13.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통일과 평화』 7집, 2015, 158-212쪽.
백현미, 『최인훈 희곡 〈등등 낙랑등〉의 감성연구』,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 189-215쪽.
빌 애쉬크로프트 외,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이석호 옮김, 민음사, 1996.
서세림, 『월남문학의 유형·경계인의 몇가지 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7-38쪽.
연남경, 『최인훈 문학의 미학적 정치성』, 『현대문학이론연구』 6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19-248쪽.
오윤호, 『『화두』와 20세기 식민지 지식인의 탈이데올로기적 저항』, 『국제어문』 46,

- 국제어문학회, 2009, 69-94쪽.
- _____, 『한국근대소설의 식민지 경험과 서사전략 연구-염상섭과 최인훈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우찬제, 『텍스트의 수사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5.
- 이수형, 『근대문학연구에서 감정의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6,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43-64쪽.
- 이안 와트, 『소설의 발생』, 전철민 역, 열린책들, 1988.
- 이재선, 『전쟁체험과 50년대 소설』, 김윤식·김우중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1995, 335면.
- 임정연, 『청춘의 표상과 감성의 정치』,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323-345쪽.
- 정호웅, 『최인훈』의 〈화두〉와 일제강점기 한국문학-〈낙동강〉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5, 한중인문학회, 2014, 179-202쪽.
-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08.
-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 그린비, 2014.
- 하정일, 『분단자본주의 시대의 민족문학사론』, 소명, 2002.
- 헬렌 티핀, 『탈식민주의 문학과 반언술행위』, 『외국문학』 1992년 여름호, 1992.

Abstract

Diaspora's Political Experience and the Location of Emotion
- A Study of Choi Inhun's Novels *The Plaza*, *The Gray Man*, and *Seoyugi*

Oh, Youn-Ho(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violence of the modern nation depicted in Choi In-hun's novels *The Plaza*, *The Gray Man*, and *Seoyugi*, and analyzes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the emotions, such as anxiety, fear, and shame experienced by the intellectual diaspora. I will look at the experience of the modern nation centered on the emotion in Choi In-hun's novels. By analyzing the processes of decontextualization and depoliticization of modern citizens, I reveal the diaspora's writing strategy. Political diaspora embody the de-nationalized subject. In the process, the emotion effectively structures the individual experience and the political performance.

In *The Plaza*, Lee Myungjun wants to acquire the identity as a citizen of the modern nation. He experiences political violence and feels anxious and fearful. Against the power of the modern state, he desires to a free citizen of the modern nation. In *The Gray Man*, Dok Kogejun realizes that Korea is not modernized and that he should live as an imperial colonizer. He expresses fear created by a violent ideology appropriating the war experience. He changes the trauma of national violence with sexual sensitivity. In *Seoyugi*, the colonial discourse inherent in the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of modern citizens is exposed in the subversive rhetorical situation. Dok Kogejun maintains the aesthetics of colonial history, disillusioned with the fantasy of modernity and the political reality which appears contradictory. He turns disillusionment into "shame."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recognize the spectrum of emotions that Choi Inhoon's early novels had, and embodied the life of diaspora that lived as both political and existential life across the twentieth century.

(Key Words: Diaspora, Choi Inhun, *Suyugi*, Fear, love, Shame, Emotion, Post-colonialism)

376 대중서사연구 제23권 3호

논문투고일 : 2017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5월 2일

수정완료일 : 2017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5월 13일